

남구의 기록자이자 행정·구민 화합 돕는 가교



부산남구신문이 1996년 1월 25일 창간호를 시작으로 어느덧 20년이 흘렀습니다. 강산이 두 번 바뀌는 동안 본지는 남구의 기록자이자 구정과 구민인 교감·화합을 돕는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해 왔습니다. 반듯한 성년으로 자랄 수 있었던 것은 남구 주민들의 사랑과 지원이 있어 가능했습니다.

20년 남구 역사 ‘갈무리’

축쇄판 제작 때 결정적 공헌

■본지 20년치 모은 신거호씨

부산남구신문의 지령(紙齡·신문 호수)에는 비밀이 있다. 본지는 1996년 1월 25일 창간했고 발간 20주년이 되는 이번 달 지령은 240호로 발행된다. 눈 밝은 독자라면 이상한 점을 집어낼 것이다. 만 20년이 되는 본지 지령은 정상대로라면 240호가 아니라 241호가 되어야 한다. 지령 호수가 맞지 않는 것은 ‘결호’가 있기 때문이고 이를 아는 독자는 극히 드물다. “아무리 찾아봐도 부산남구신문의 한달 치가 빠져 있어요.”

본지 애독자인 신거호씨의 말이다. 신씨는 20년치 본지를 하나 빠지지 않고 보관하고 있다. 신씨가 의아해하는 결호는 1998년 5월 지면이다. 제2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 공정성을 위해 그 달 구보를 찍지 않았기 때문이다.

신씨는 남구청을 퇴임한 퇴직 공무원이다. 동명목재 미장부 직원으로 일하다가 1979년 환경미화원으로 남구청에 들어왔다. 이후 예비군 중대본부장을 거쳐 1983년 기능직으로 임용돼 근무하다 지난 2007년 12월 퇴직했다.

우표, 화폐, 월급명세서 등 평소 뭐든 모으고 갈무리하는 것이 취미인 신씨는 창간호부터 본지를 모두 집안에 보관하고 있다. 세월이 흐르면서 종이도 변색되자 라면박스에 넣은 뒤 테이프 밀봉해 보관한 덕에 20년이 흐른 창간호도 보존 상태가 매우 양호하다.

신씨의 이런 노력은 본지 축쇄판 제작에도 큰 기여를 했다. 남구청은 지난 2012년 12월 지령 200호를 기념해 그간의 지면을 모두 모아 책자 형태의 축쇄판을 발행했다. 당시만 해도 축쇄판 제작은 일간지가 아닌 구정소식지로는 극히 이례적이고 의미있는 작업이었다.

그런데 축쇄판을 만들려는데 문제가 생겼다. 구정에 보관돼 있을 거라 여겼던 신문 일부가 사라진 것이다. 2008년 지금의 남구청 신청사로 옮겨오는 도중 창간호를 포함해 보관용 신문 상당수가 유실됐다. 2000년대 이전 신문은 PDF 전자파일이 없어 종이신문이 없으면 축쇄판 제작은 고사하고 기록 자체가 증발할 위기에 처했다. 이때 창간호부터 최신호까지 본지를 가지고 구청을 방문한 신씨의 도움으로 축쇄판은 무사히 만들 수 있었다. 더불어 ‘역사의 구멍’도 채울 수 있었다.



부산남구신문을 모두 보관하고 있는 애독자 신거호씨가 손자와 함께 창간호를 보여주고 있다.

■ ‘부산남구신문의 꽃’ 명예기자 7인 회고

본지는 1998년 2월부터 주부 명예기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산남구신문의 ‘꽃’으로, 때로 민심을 읽는 ‘적후병’으로 활동하며 본지의 역사와 함께 한 명예기자 7인 소감을 들어봅니다.

주마등 같은 20년,
이젠 성숙해질 시기

명예기자로 활동하면서 취재현장을 누볐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간다. 무엇보다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희망을 버리지 않고 생업 현장에서 구슬땀을 흘리던 노점상 할머니의 환하게 웃던 모습을 잊을 수가 없다. 명예기자회 회장으로 활동하며 기자들과 봉사활동을 하며 느꼈던 작은 보람들을 생각할 때 지금 가슴 뿌듯함을 느낀다.
김옥련 명예기자·기자회 회장 (1998년 2월 위촉)

20년, 그냥 지나간 세월이 아니었다

명예기자라는 이름으로 처음 부산남구신문을 만났던 때가 떠오른다. 서툰지만 명예기자라는 이름에 부끄럽지 않기 위해 노력했던 수많은 날들. 주민들에게 기쁜 소식, 슬픈 소식 때로 도움 필만한 소식을 전하기 위해 사방팔방 헤집고 다녔던 기억이 새록새록 난다. 내가 취재한 기사가 지역신문과 지상파 방송까지 타면서 도움을 받은 장애인 가정의 기억은 잊지 못할 보람이기도 하다



본지 명예기자들이 남구청 사회의실에서 취재와 편집에 관한 기획회의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능숙, 최현숙, 김혜주, 한정미, 신경희, 유경희(기자회 총무) 최정순 명예기자.

다. ‘세월이 그저 흐른 것이 아니라 인생이 익어간다’고 한 어느 노래 가사처럼 우리도 더욱 숙성된 명예기자가 되길 감히 꿈꿔본다.

조을홍 명예기자(1998년 2월 위촉)

명예기자 20년은 자기계발의 시간

돌이켜보면 주부모란 살아오다 사회 첫발을 내딛은 곳이 부산남구신문이었다. 그동안 구정과 주민을 잇는 가교 역할을 위해 나름의 노력을 기울이며 열심히 달려왔다고 자부한다. 이런 과정에서 나를 돌아볼 수 있었고 사회와 지역에 관심을 가지며 여러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었다. 그만큼 보람도 느꼈고 무엇보다 자기계발의 필요성을 몸소 체험한 시간이기도 했다.

신경희 명예기자(1998년 2월 위촉)

그동안 쓴 기사 모으면 책이 한권

처음 썼던 기사가 부산문화회관에서 기획한 윤석희의 마리아 칼라스였던가. 공연을 보고 후기를 올렸던 것 같다. 그동안 쓴 기사를 모으면 한권의 분량은 되지 싶다. 취재를 하고 인터뷰도 하면서 나름 다 소중한 순간들이었지만 특히 기억에 남는 건 “2000년도를 맞는 각계 명사들의 비전과 전략”에 관한 새해특집 기사다. 두 시간 좌담을 녹취하고 그 대화 내용을 일일이 노트에 기록하는 일이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었다. 중요한 내용을 추려 원고지 30매 정도로 압축하는 작업이 며칠 계속 됐다. 설과 겹쳐 시택인 합천에 가서도 이어졌다. 한 면을 다 차지하는 신문이 발행했을 때 고생한 보람이 느껴졌다.

한정미 명예기자(1998년 2월 위촉)

부산남구신문 참여자로 행복감

‘서울은 강남구, 부산은 남구’. 나의 캐치프레이즈

이즈다. 16년 전 서울에서 부산으로 이사왔을 때 출퇴근이 편해 남구를 선택했지만 이제는 부산남구신문 때문에 남구를 못 떠나다면 조금은 허풍일까? 하지만 그 허풍 속에 일부는 진심이다.

지역의 살림살이와 발전은 곧 나의 가정 경제와 희망으로 이어지고 내 이웃의 소소한 소식이 곧 나의 작은 행복이 된다.

최현숙 명예기자(2002년 2월 위촉)

글 쓰는 스트레스와 탈고의 행복감 만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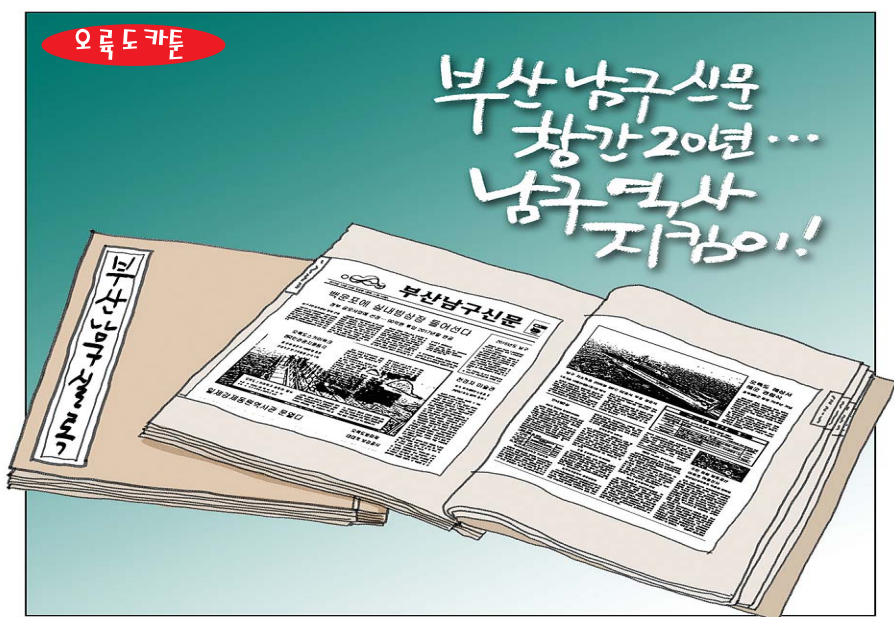
부산남구신문과 그 절반인 10년을 함께 했다. 돌이켜보면, 바쁜 일과와 맞물려 기사마감 날짜를 맞추지 못할까봐 늦은 밤까지 기사 자료를 들여다보며 보냈던 시간들이 많았다. 힘든 시간도 기사 마지막 내 이름 석자를 타이핑하는 순간 눈 녹듯 사라지고 뿌듯한 쾌감이 밀려오곤 했었다. 기자들이 모여 신문 교정을 보는 시간들도 잊지 못했다. 오탈자를 잡아내고 서로 물어가며 문장을 바로잡고 공간이 유머로 섞여가며 힘든 줄 모르고 지나온 시간이었다.

이두래 명예기자(2006년 5월 위촉)

열심히 살아가는 이웃이야기 많이 써

비록 7년차 명예기자이지만 발로 뛰며 어려운 상황을 딛고 꿋꿋하게 살아가는 이웃들의 이야기를 많이 썼다. 그 덕에 기자의 어려움과 한계를 느낄 수 있었다. 온종일 문헌동을 돌아다니다가 발견한 옛날 이발소 앞을 서성거리면서 주인공이 나오길 기다린 끝에 취재에 응할 때의 기쁨을 잊을 수가 없다. 차며 걸린 시어머니와 휠체어 탄 남편을 부양하는 여직 이웃의 미담을 취재하려다가 거부당해 곤란하게 설득했던 기억도 선명하다. 가뭄까지 마친 기사가 정작 신문 인쇄 때 속 빠져버렸을 때의 당혹감과 억울함은 지금도 가슴 아프다.

김정희 명예기자(2009년 4월 위촉)



■안 내. 알 림

100세시대 생애설계·자녀교육

‘100세시대 생애설계와 자녀교육’ 강연이 오는 30일(토) 오후 4시~5시30분 남구청 1층 대강당에서 열린다. 미래연금포럼 강창희 회장이 100세시대 생애설계에 대한 강연을 30분간 맡고 이어 서울대 등 명문대의 높은 진학률을 인문계 자주 소개되는 거창고등학교에서 40여 년 간 몸담으며 학생들을 가르친 전성은 전 교장이 자녀교육에 관한 강연과 질의응답을 진행한다.

남구소년소녀합창단 정기연주회

남구소년소녀합창단 제7회 정기연주회가 오는 2월 19일(금) 오후 7시30분 부산문화회관 중극장에서 열린다. 애니메이션 메들리를 시작으로 전래동요 하늘천따지 등을 부를 예정이다. KN남성초창단이 축하공연을 펼친다. ☎607-4064

다문화가정 교육프로그램

사)국제청소년21 다문화가족지원센터(뚝골골목시장 고객편의시설 맞은편)에서 아래와 같은 무료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한글 초급 : 월·화·금요일(10:30~12:30)

:30) △TOPIK(한국어능력시험) 초·중·급 : 화·금요일(10:30~12:30) △재봉 : 목요일(10:00~13:00) △요리 : 수요일(10:30~12:30) △납권교실 : 매월 셋째 주 수요일(19:00) △학부모교육 : 매주 수요일(13:00) ☎070-7561-1388

명문 야학 남부중고교 학생 모집

44년 명문 야학인 부산 남부중·고등학교에서 배움의 기회를 놓친 성인이나 정규학교 부적을 청소년을 대상으로 2016년 신입생을 모집한다. 모집 부문은 초등반(한글 기초)과 중·고등반(검정고시 준비)이며 무료이다. ☎010-4543-4746

오륙도신문 캐리커처 50인전

동남권 대표 주간지를 추구하는 오륙도신문(대표 하인상)이 창간 2주년 기념식 및 캐리커처 50인전 자선전시회를 오는 29일 오후 7시 부산문화회관 중전시실에서 개최한다. 오륙도신문은 동부산권 정문지 필 주간지를 표방하며 지난 2014년 1월 발행을 시작해 현재 남구, 수영구, 해운대구, 기장군 등지에 신문을 무료 배포하고 있다. 창간기념식과 함께 부산시민 50인의 웃는 모습을 그린 자선전시회도 연다. ☎622-4075

헌법재판소 지역상담실 운영

지역 주민들의 헌법재판제도에 대한 접근 기회 확대와 상담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헌법재판소 지역상담실이 부산시청 3층 애민실에서 매월 3째 주 수·금요일 운영된다. 헌법과 관련된 기본권을 침해 당한 주민은 누구나 무료 상담 받을 수 있다. 문의 : 헌법재판소 심판지원과 ☎02-708-3467 부산 지역상담실 ☎888-6969 상담시간 : 수요일 14:00~17:00, 목·금요일 10:00~17:00 (점심시간 : 12:00~13:00)

어르신 한글교실 10곳 운영

남구 관내 행복학습센터(5개소), 경로당(4개소), 남부중고등학교에서 배움의 기회를 놓쳐 한글을 배우지 못해 생활에 불편을 겪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읽기와 쓰기 등 기초 문해능력 향상을 돕는 ‘어르신 한글교실’을 1월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교육 내용은 초등학교 1~2학년 수준의 문해 프로그램을 수준별 맞춤교육을 제공한다. ☎607-4515

행복학습 매니저 수강생 모집

남구는 행복학습센터 프로그램을 운영·관리·상담할 ‘제2기 행복학습 매니저 양성

과정’ 수강생을 선착순(20명) 모집한다. 강의는 2월17일부터 3월 18일까지 매주 수·금(14:00~17:00) 주 2회, 총 10회 진행된다. 수강료는 무료이고 교육 후 실습 후 성적 우수자는 남구 행복학습센터에서 행복학습매니저로 활동하게 된다. 신청은 1월 25일부터 2월 15일까지 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party912@korea.kr) 접수 또는 남구평생학습센터 방문. ☎607-4515, http://edu.bsnangju.go.kr

29일 무료 가훈 써주기 행사

남구 바르게살기운동 남구협의회(회장 윤병일)는 오는 29일(금) 남구청 2층 민원실 앞에서 ‘1가정 1가훈 쓰기’ 행사를 개최한다. 오후1시~4시30분 남구 주민 선착순 300명을 대상으로 서예가협회 정갑삼, 이후근 회원이 가족의 건강과 가정의 발전 기원 가훈을 무료로 써준다.

병역 명문가 2월 19일까지 접수

병무청에서는 3대(代) 모두 현역 복무를 성실히 마친 병역명문가를 2월 19일까지 신청받는다. 3대 모두 현역병·부사관·준사관·장교 복무를 명예롭게 마친 가문이다. 최고 병역명문 20가문을 선정해 시상한다. 1588-9090, www.mma.go.kr

우리집 옆 ‘쌔지도서 평생학습관’

도서관명	위 치	운영시간	장서(권)	연락처
대연4동쌔지도서 평생학습관	주민센터 1층	월~금 13:00~17:00	6,676	607-6676
대연6동쌔지도서 평생학습관	주민센터 2층	월~금 13:00~17:00	3,395	607-6704
용호1동쌔지도서 평생학습관	주민센터 1층	월~금 9:00~18:00	4,724	607-6722
용호2동쌔지도서 평생학습관	주민센터 1, 2층	월~금 9:00~18:00	4,648	607-6745
용호3동쌔지도서 평생학습관	주민센터 3층	월~금 9:30~16:00	3,699	607-6764
용호4동쌔지도서 평생학습관	주민센터 2층	월~금 14:00~18:00	3,800	607-6785
감만1동쌔지도서 평생학습관	양지골복합센터 2층	월~금 9:00~18:00	5,700	607-6826
감만2동쌔지도서 평생학습관	석포로 50-5 (글마루도서관)	월~금 14:00~18:00	8,944	607-6842
문현1동쌔지도서 평생학습관	새마을금고 2층	월~금 13:00~17:00	3,210	607-6902
문현2동쌔지도서 평생학습관	평생학습관 (동민의원 옆) 2층	화~토 13:00~17:00	4,000	607-6925
문현3동쌔지도서 평생학습관	주민센터 2층	월~금 13:00~17:00	3,360	607-6942
문현4동쌔지도서 평생학습관	주민복합센터 3층	월~금 13:00~17:00	4,567	607-6966